

PetroChina, 원유 유출사고 발생

신화통신, 송유관 화재로 6차례 폭발 ... Dalian 인근해역 50km² 오염

PetroChina의 송유관 화재 사고로 Dalian 인근 바다에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화통신은 7월18일에 중국 Liaoning의 Dalian에서 PetroChina의 송유관에서 16일 발생한 화재로 원유가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인근 해역 50km²가 오염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20척의 선박을 동원해 제거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Dalian 항구에서 라이베리아 유조선이 원유를 내리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화재 발생 후 모두 6차례의 폭발이 있었으며 화염이 수십미터 높이까지 치솟자 중국 당국은 Dalian 인근 도시 14곳에서 차출한 2000여명의 소방관, 338대의 소방차를 투입해 15시간만에 진화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공군도 17톤의 화재 진압액을 실은 Y8 항공기 2대를 화재 현장에 투입했으나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현장 부근의 민간 600가구 주민에 대해서도 긴급 대피조치가 취해졌다.

중국 국영라디오방송은 PetroChina의 송유관 화재로 Dalian 도심이 인체에 해로운 화학가스로 뒤덮여 숨을 쉬기 곤란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19>